

April 02 아버지,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

• 누가복음 23:34

누군가의 삶을 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죽음의 순간입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 마지막으로 하신 가상칠언(架上古言)을 보면,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위함이었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.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‘용서’였습니다.

“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”(눅 23:34).

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가장 어려워합니다. “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”(요 13:34-35).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‘모든 사람’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‘많은 사람’이 아니라 ‘모든 사람’입니다.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.

예수님은 십자가에서 ‘용서’하셨습니다.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. 십자가는 억울하고 비합리적이고, 비논리적입니다. ‘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왜 내가 그래야 하지?’ 그것이 십자가입니다. 조금 버겁거나 힘든 일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짐 혹은 수고입니다. 예수님은 ‘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’고 말씀하셨습니다.

십자가의 용서에는 아픔과 눈물이 동반됩니다.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고통일 것입니다. 상대방이나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아 두려울 것입니다. 반복되는 용서에도 불구하고, 문제가 반복됩니다. 지치고 상처받습니다. 왜 나만 용서하라고 하는지 억울합니다. 그럼에도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결국, 우리는 절망하며 울부짖게 됩니다. “나는 할 수 없습니다!” 그렇습니다. 용서는 하나님께 위임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. 용서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위임하는 것입니다. “아버지,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.”

나는 용서의 첫발을
내딛습니까?

- ① 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까?
- ② 용서의 첫걸음, 하나님께 간구하며 위임합니까?